우수공무원
동상

거창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담당 주무관('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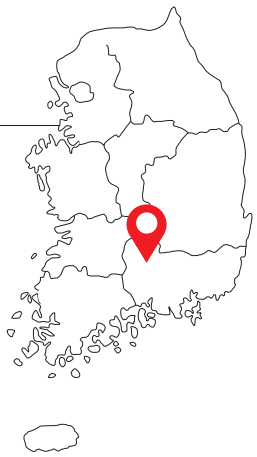
경남 거창군

장병문 주무관

경상남도 거창군 농촌지역개발 전담부서인 행복농촌과가 신설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창군 마을만들기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병문 주무관은 거창군의 주민주도 행복농촌 만들기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현장중심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키워 마을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부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 2회를 포함한 금상 3회, 은상 2회 등 총 8회 입상 성적을 거두었고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장병문 주무관의 활동지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주요사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등



▲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퍼포먼스(마을만들기 분야 대통령상)

"

활동가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의 성공 스토리

"

▲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빙기실마을 대통령상)

▲ 농촌협약 공모 주민토론회

주민주도 행복농촌 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거창군 주민주도의 행복농촌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마을대학을 139개소 운영하였으며 2단계로는 마을만들기의 경험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182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 37개소, 군 자체 농촌현장포럼 16개소(총 5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으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마을과 매칭하여 행복농촌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도출한 사업과제의 실현

주민이 함께 도출한 사업과제는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은 전국 최대규모인 470억원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확보해 거창군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거창군의 숙원사업인 폐축사단지 130여동을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5개소 추진으로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현마을 농촌운동

▲ 마을활동가 육성대학 운영

장병문 주무관은 전문가·민간·행정이 함께 만드는 거창군 마을만들기 마스터플랜을 꿈꾸며 10년간 거창군 행복농촌과에 근속하였습니다. 주민참여와 한국농어촌공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제3회 마을만들기 분야 금상, 제6회 소득·체험 분야 금상, 제9회 경관·환경 분야 금상, 제4회 문화·복지 분야 은상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거창군 행복농촌 만들기 우수성을 확산시키고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신활력플러스사업·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1,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행복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두 개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경상남도 최초로 설립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2021년 5월 설립된 거창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사무국입니다. 여기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발굴 및 육성된 현장활동가를 더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문 주무관은 행복이라는 쉽고도 어려운 단어를 가슴에 품고 거창군을 행복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대학 운영